



# 모기퇴치제품, 제대로 알고 사용하기

여름이 되면 부쩍 사용이 많아지는 모기퇴치제품.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용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모기퇴치제품의 종류, 모기를 쫓는 주성분, 사용 시 주의사항, 보관방법 등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두어야 가족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지켜낼 수 있다.

글/ 최보경 화장품심사과장

## 모기퇴치제품이란?

모기퇴치제품의 종류로는 코일의 선단에 점화하여 훈연하는 모기향, 살충성분을 포함하는 액체가 전기훈증되는 액체 전자모기향, 살충성분을 포함하는 매트가 전기훈증되는 매트 전자모기향 및 뿌리는 에어로졸 제품이 있다.

모기들은 모기퇴치제품에 포함된 어떤 성분을 싫어하는 것일까. 먼저 모기향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은 프랄레트린, 알레트린 등이다. 뿌리는 에어로졸 제품에 함유된 성분은 프탈트린, 퍼메트린, 싸이퍼메트린, 페노트린, 알레트린, 레스메스린, 바이오레스메트린, 프로폭솔, 이미프로트린, 에스바이올, 피레트린

엑스 등이 있다. 액체 전자모기향은 프랄레트린, 매트 전자모기향은 알레트린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다. 이런 성분들은 대부분 국화과 식물인 제충국에서 얻어지는 피레스린 유도체들이다.

이 성분들은 살충·기피효과를 나타내는 기전이다. 카바메이트계 살충제인 프로폭솔 등은 곤충의 신경 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효소(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의 활성을 저해하여 곤충의 신경계 기능을 마비시킨다. 또 제충국에서 추출한 물질인 피레트린엑스 및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인 퍼메트린, 싸이퍼메트린, 알레트린 등은 곤충의 신경계를 공격하여 마비증세를 일으켜 벌레를 죽인다.

### 모기퇴치제품 사용 시 주의 사항

**모기향**  
 모기향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인화성이 있는 물질 근처나 밀폐상태인 방에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모기향의 타는 부위에 온도는 빨간 부분이 약 700℃, 말단이 약 250℃로 매우 높은 온도이기 때문에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모기향의 부형제로서 목분, 아교 등이 혼합되어 있어 이런 천연물질이 탈 때 해로운 성분이 발생하니 환기가 잘되는 방에서 사용해야 한다. 모기향을 보관할 때는 고온 다습한 곳을 피해야 한다.

**액체/매트 전자모기향**  
 좁은 방에서 사용할 때는 환기를 잘 시키면서 사용해야 하고 밀폐된 방에서 사용할 경우 비염, 천식, 혼수, 재채기, 두통, 이명, 구역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전기가 흐르는 동안은 살충 성분이 휘산되고 있으므로 사용 후에는 반드시 스위치를 빼야 한다. 매트 열판은 약 150℃, 액체모기향 열판은 약 170℃이므로 전기가 통하고 있는 전기훈증 살충기 열판에 직접 손을 대거나 금속을 접촉시키지 않아야 한다. 또 훈증기가 이불, 의류 등으로 덮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거꾸로 또는 옆으로 놓은 채 사용하면 안 된다. 매트 전기모기향의 청색 매트가 거의 백색으로 될 때 새것으로 갈아 끼우면 되는데 약 12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 최적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기훈증기와의 거리를 보통 2미터 이내로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전자모기향의 다 쓴 매트는 아이들이 갖고 장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살충성분이 어린이의 장난감 등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하며, 닿았을 땐 즉시 비눗물로 씻어주어야 한다.



**에어로졸제품**  
 액화석유가스가 들어 있는 에어로졸 제품은 사람을 향해 직접 분사하거나 분무기체를 흡입하지 않아야 하고 밀폐된 실내에서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환기를 시키며 불꽃을 향하거나 난로 등 화기 근처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피부, 음식물, 식기, 어린이의 장난감 등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닿았을 때 즉시 비눗물로 씻는다. 또한 관상용 물고기나 조류 등에 뿌리지 말아야 한다. 에어로졸 제품은 고온의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면 폭발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관시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모기피제의 올바른 사용법**

모기피제는 모기를 죽이는 살충효과는 없으나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인 디에칠톨루아미드, 파라멘탄-3, 8-디올, 리나롤, 페메트린 등을 함유하고 있어 모기로부터의 접근, 공격을 막아준다.

모기피제의 사용 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먼저 모기피제는 팔, 다리 등 피부나 옷에 뿌리거나 발라주면 되는데, 눈이나 입 주위, 상처부위, 햇볕에 많이 탄 피부에는 닿지 않게 해야 한다. 또 자외선차단제와 함께 사용할 때에는 자외선차단제를 먼저 바른 다음 모기피제를 바르도록 한다. 필요에 따라 자외선차단제는 덧바를 수 있지만 모기피제는 필요 이상으로 바르면 부작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용법·용량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특히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는 반드시 어른 손에 일정량을 취한 후 어린이에게 발라주고 어린이의 손·눈·입 주위에는 바르지 않도록 주의한다.

외출에서 돌아오면 피부를 비누와 물로 씻고 옷이나 양말 등에 뿌렸으면 다시 입기 전에 반드시 세탁하여야 한다. 속옷이나 밀폐된 장소에서는 사용하지 말고 특히 디에칠톨루아미드 함유 제품은 약액의 물성상 플라스틱 안경테, 합성 섬유 등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